

술을 한잔 먹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하면 그대로 내뿜었어요. 계행에 어긋나면 바로 옷 벗기고 속복을 입혀서 내뿜었지요. 또 여자는 절에 절대 못 들어왔어요. 요새는 너무 무뎠지요. 예전에 수좌들은 음식을 여자가 만들었다면 먹지도 않고 내버렸지요. 그만큼 계행에 철저했다는 얘가지요. 그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풀어진 것이 일제시대부터지요.

—최근 들어 참선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어렵다고도 하고, 수행도 뭐가 된 지 모르겠다고 지레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보다는 기록에 빠지기 쉬운 데 불교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요.

▲불교를 소극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우리 마음자리가 우주생기 전에 본래 있는데 그 마음자리에서 한생각 일어나는데서 사방세계가 벌어졌으니 우주 만물이 다 청정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방속에 들앉아 있으면 방안에 있는 것을 모르게 없는 것처럼 본래 마음자리를 알기되면 우주진리를 자연히 깨치게 되는 것이지요. 불교는 그 만큼 스케일이 큼니다.

일체 모든 것이 불교 안에 안들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중생에게 교화해서 끝이 없고 시작도 없는 안락생활. 참말로 자유자재한 근본도리를 바로 가르치고 바로 참구해서 바로 보게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우주라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크지만 그것이 이처럼, 내 손바닥안에 있는 법을 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깨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늘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

를 하려는 재가자들이 많이 물려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참선을 하는 불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이 고평한 숲속 나무 밑에서 많이 좌선을 하고 있는 것을 유마거사가 보고 타이른 말이 있었습니다.

“앉아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실속에 살면서도 몸과 마음이 동요가 없는 것이 좌선이다. 생각을 쉬어버린 무심한 경지에 있으면서도 온갖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좌선이다. 마음이 고평에 빠지지 않고 또 밖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이 좌선이다.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이다.”

장사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면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뭘 하더라도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방에 들어앉아 하는 것은 그것에서 힘을 양성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뭘 하더라도 여여하게 하자는 뜻이니가 초보자들은 선방에 가서 하면 힘이 생기지요. 그러나 선방에 들어앉아 있어야만 공부 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도리라는 것은 한생각 일어나기 전제, 한생각도 안 일어나는, 말 안하고 생각 안 일어날때 오는 당처, 가만 있을때 오는 근본당처를 들고나가는 것이 선입니다. 우주생기기 전제 근본당처를 들고나가는 것이 선입니다.

—망상 때문에 진척이 안된다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망상이 태산같이 오더라도 망상이 왔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지요. 가만 놔두고 화두에 집중하세요. 본자성 들고나가는 것이 힘이 세지면 번

몸과 마음 동요없는 것이 좌선

업장 녹으면 본자성 드러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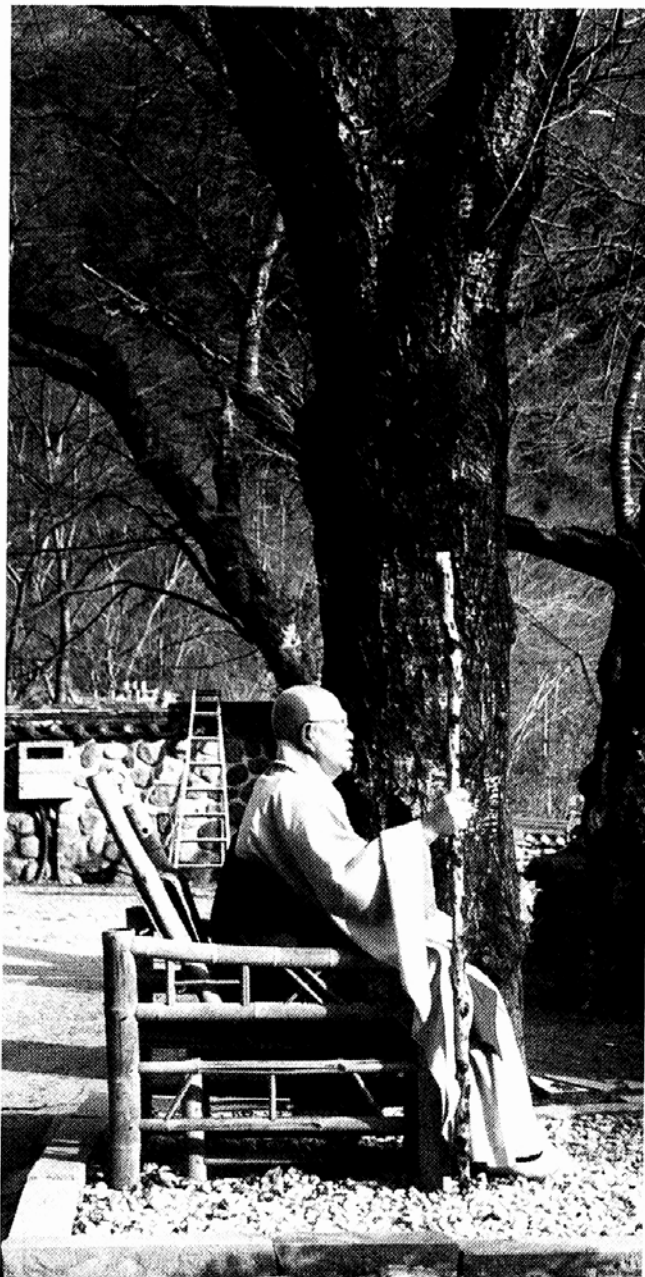
님이 제일이라 하지만 불교에서는 삼천대천세계를 말하지요. 수억만개의 세계가 있지만 중생들이 마음먹는 것, 움직이는 것을 마음 하나로 다 보아 버립니다. 우주 전체가 내 마음 자성 자리와 같다는 이치를 체득하는 것이 부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보듯이 우주 전체가 전부 다 봐버려져요. 우리 몸뚱이가 눈이 있으면 눈으로 보고 입이 있으면 입으로 말하듯 그때까지는 우주 전체가 내 눈 내 입이 되는 것이지요. 상대가 없어요. 부처님 같은 큰 도인들은 중생들이 보기에 몸이 있는 것 같지만 우주 전체가 몸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방세계 이대라고 내 몸이요. 이대라고 내 눈이요. 팔만사천 법문이 있지만 그 핵심은 근본 마음자성자리를 들고 업장을 녹이는 바른 길로 들어가 부처가 되라는 것이지요.

뇌망상이 점점 녹습니다. 힘을 얻으면 새로 든다는 생각도 없고 망상이 일어난다는 생각도 없고 지절로 죽 나가지게 되지요.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언제라도 똑같이 되고, 또 밤에 누워자면서 꿈을 꾸더라도 화두가 들리지요. 그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누워 자요를 골더라도 화두가 들려. 남들이 보면 누워 자는 것 같지만 정신상으로는 자는 것이 없으니가 저절로 화두가 들리는 경지에 간다면 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불수행은 일반적으로 쉬운 수행법으로 알고있고 요새 부처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염불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미타불 부르든지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부르든지 뭘 하더라도 조금도 차별이 없어요. 첫번째는 고승지(高聲持)로 하세요. 큰소리로 부르는 것이지요. 그렇게 익혀서 조금 힘을 얻게되면 옆에 사람이 들을까 말

—요새 도시에 있는 선방에서는 생활 가운데 틈틈히 시간을 내어 좌선



◇청정계행을 지켜 수행에 일로 매진하는 것이 한국불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시는 지용스님.

까 하는 미성지(微聲持)로 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 나가면 헛바닥을 놀리지 않아도 되는 '비동설지(非動舌持)', 즉 헛바닥을 놀리지 않아도 저절로 염불이 나간다는 경지지요. 자꾸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힘을 얻으면 금강지(金剛持)로 들어갑니다. 금강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염불할 것도 없고 선정할 것도 없고 하려고 할 것도 없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는 경지지요. 그게 염불선입니다. 그렇게 익고 익고 더 익히면 마담에 달이 비추는데 파도가 쳐도 조금도 동하지 않고 등대가 비추거나 배가 오거나 조금도 동요함이 없는 달과 같은 경지에 이릅니다. 염불선으로 해서 금강지에 드는 것이나 꿈속에서 조차도 화두에 드는 것이나 한가지예요. 우리가 성불한다는 것이 뭘 될것을 찾아가지고 되나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향

상 명심하세요. 견성성불은 이미 돼가지고 있는데 허공의 해와 같이 본 당체를 들고나가면 다생겁래 익힌 업장이 녹아빠지면서 본자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보들이나 후학들에게 평소 강조하시는 점은.

▲하나입니다. 청정계행으로 공부 잘하라고 합니다. 불교 살리고 죽이는 것이 다 계행 지키기에 달려있어요. 계행이 없는 데서 공부는 발원 못합니다. 계행이 근본이 되면서 공부를 하면 계행과 선이 둘 아닌 지경에 들어가고 그래야 진짜 공부가 되는 것이지요.

대답=이경숙 부장 (gslee@buddho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opia.com)

효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햇차같은 선승 여연스님

세상이 급변하고 있었다. 조선조 말 유생들 사이에도 실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실학이라는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추사 김정희라든지 하는 천재적인 사상가들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천재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류를 한 스님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초의 의순 선사이다. 사상이나 학문에 있어서나 시서화 등에 있어 당대의 누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던 거기에 승려로서도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대 선사였다. 그러나 후학인 우리들이 스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다성(茶聖)으로서의 초의이다.

배불정책으로 인해 변변한 불교인물이 없던 그 시대에 초의선사는 '차'만으로도 불교사 뿐 아니라 우리 민족사에서 빛나는 위대한 인물이다. 다산과 추사에게조차 초의는 차에 있어 스승이다. 술밖에 모르던 조선시대의 선비들에게 차를 마시게 하고 차의 문화와 멋을 알게했다.

그러한 차인으로서의 초의선사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스님이 있다. 바로 해남 대둔사 산내 암자인 일지암 암주로 있는 여연(如然)스님이다. 일지암은 초의선사가 직접 창건하고 말년을 보낸, 한국차문화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일지암은 오랫동안 그 위치가 어디인지도 알지못한 채 문헌상에서만 전해 내려왔었다. 그런데 차를 좋

도 잘 모를 때 스님은 사천 다술사를 찾아가 당대 최고의 다인 효당스님에게 차를 견문(見聞)하고 배웠다. 그리고 차에 대한 문헌을 모으고 공부를 했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차를 강의했다. 당시 전국 각 대학에서 여연스님의 차 강의는 아주 유명했다. 물론 지금도 여연스님의 차 강의는 명장으로 유명하지만 차를 널리 알리는데 공을 세운 스님이다.

여연스님이 시대를 앞서간 것은 차에 국한되지 않는다. 솔직한 불교가 민족의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강점이 있지만(차문화를 포함해서) 반대로 외국문물에 대한 이해에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때 여연스님은 일찍부터 우리문화 전통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울러 외국문물에 대해서도 남달리 깊이 이해하고 있는 몇 안되는 스님이다. 어렸을 적부터 영어를 잘했고 그 영어를 바탕으로 근 현대 서구사회의 음악이나 그림 같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조계종단에 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재를 활용하고 인재에 대우할 줄 모르는 게 아닐까?



그림·문병성

전통문화 해박한 지식

녹차 대중화에 기여

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70년대에 암자터를 찾아내고 지금의 암자를 새로 지었다. 여연스님은 그때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중 한사람이었고 지금은 일지암의 암주가 되어 일지암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여연스님은 바로 초의선사의 후신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내가 여연스님을 초의선사의 후신이라고 하는 것에는 단지 그가 일지암에, 살고 있어서뿐이 아니다. 다인(茶人)으로서의 초의를 닮은, 다인으로서의 여연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다. 요즘은 너 나 없이 차를 즐겨 마시고, 또 녹차가 동네 슈퍼에만 가도 살 수 있게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산중의 스님들만 마시는 것이 녹차였다. 아니 60년대 내가 처음 슬러가 되었을 때만 해도 절 집안에서조차 차는 흔한 것이 아니었다. 특별한 몇몇 스님만 마시는 기호품이었다. 그런 차를 우선 스님들의 일반적인 기호품으로 유행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스님중 한 사람이 여연스님이다. 나 역시 이때부터 차를 몹시 좋아하게 되었다. 여연스님을 알게된 일은 꽃이 화사하게 핀 봄날 잘 밧제된 우전차(雨前茶)를 마시는 것만큼이나 싱겁고 기본중은 일이었다. 그리고 보니 여연스님은 싱그러운 햇차같이 샤프한 그런 선승(禪僧)이다.

오늘날 전통차를 마시자는 취지 아래 우리 사회 전반에 너나 없이 녹차를 마시는 것이 유행하게 된 저변에는 여연스님같은 분이 큰 기여를 했다. 남들은 차가 무언지

그건 그렇다치고 내가 여연스님을 정작 좋아하는 것은 그의 섬세한 감수성과 사물을 보는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는 그 섬세한 마음을 바탕으로 맛깔스런 글을 쓴다. 입안에 들어가면 살살 녹는 감칠맛 나는 글을 쓰는 데는 아마 여연스님 같은 분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나도 이곳저곳에 두서없이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냥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쓰는 글인데 비해 여연스님은 문학성이 높고 향기를 가진 글을 쓴다.

무등산 뒤에 가면 옛날 송강정철 문학의 산실이라고 하는 식영정(影影亭)이 있다. 그 식영정에 대한 여연스님의 수필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글이란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하는 감탄이 나오게 했다.

나는 단순하면서 담박하기도 한 성품의 여연스님을 좋아하고 여연스님의 글을 좋아한다. 우리는 마땅히 존야할 것이 있으면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칭찬할 것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불교와 불교문화를 더욱 중요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0학년도 (제 13회)

전북불교대학 불교학과 통신과정 신입생 모집

① 취 지
본 대학은 1988년 개교 이래 13년간 1천5백여명의 학인을 배출한 불교교육의 명문교양대학으로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통신과정 개설을 요청해와 금년에 통신강좌를 개설하고 신입학인을 모집함.

② 교육과목

학 과	교육 과목	수업시간(아간) 오후 7시~9시
불교학과 (16학점)	부처님의 생애, 불교개설, 불교와 생활, 천수경강독, 대승불교사상, 금강경강독, 불전개설	매주 목·금요일
법사과 (16학점)	반야심경, 초발심지경론, 불교와 동양사상, 한국불교사상, 선사사상, 의식실수, 포교이론과 실제, 비교종교학	매주 목·금요일

③ 모집요강
 ◆모집학과 : 불교학과(150명) / 법사과(150명)
 ◆지원자격 : 불교학과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
 법 사 과 : 본 대학 불교학과 1년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 가진 분
 ◆교육연한 : 1년 ◆구비서류 : 입학지원서 1매, 방명환판 사진 3매
 ◆정규출강반은 매주 목·금(오후 7~9시)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
 ◆입학식 : 2000년 3월 5일(일) 오후 2시 본대학 큰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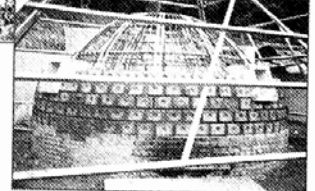
④ 기 타 (통신과정)
 ◆강의 태일 매주 우송(정규반과 진도 동일) ◆학교신문(월간) 및 학교 발행물, 각종자료 우송
 ◆정기등교일 : 입학식, 졸업식, 성지순례, 수련대회, 연2회 특강(동·하계)
 ◆통신강좌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금융기관으로 수강료 입금후 전화 또는 팩스 연락바람.
 전북은행 003-02-0042737 예금주 김경기

⑤ 통신 강좌반을 위한 강간기 교수 '알기 쉬운 불교' 특별강좌
 ·전북불교대학 강간기(전북대 철학과 교수) 학장의 알기 쉬운 불교가 통신강좌반을 위해 특별히 진행됩니다.
 ·부처님의 전생담에서 부처님 생애 - 인도·중국·한국·일본으로 전해져 오는데 이른 불교를 시대·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불교 서사시
 ·이 강좌는 불교 초심자를 위해 눈높이를 맞춘 통신 대강경으로 불교를 이해하는데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전북불교대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48-5
 ☎ (0652)226-7878 FAX (0652)226-7879

대륙

항토방 · 항토주택

▲ 항토주택 ▲ 토굴 항토방

① 양질의 순수 항토만을 사용하여 시공
 ② 전통 방식의 구들시공
 ③ 풍부한 건축 경험으로 완벽한 시공

대륙건축 항토방 사업부

대표 이 성 우

경기도 용인시 남2동 424-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숙면, 쾌변 그리고氣...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젠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101 상공보도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는 자연입니다.
 돌침대 만들기 10년, 침대가 전자파 제거 기능을 갖고 있는 세계 유일인 특이(등록 0157651)제품

돌침대의 효능

- ◆봄(가을)에 불을 안넣으면반딧불이 차고...정말 돌침대가 필요할때
- ◆여름에 세면탁 축축하고 눅눅한 방기세...라빙스톤으로 시원하게
- ◆취침을 반듯하게 고정해 줍니다.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합니다.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 ◆침대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 ◆초장파 시스템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백을 차단했습니다.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 ◆현달 전기료는 1200원 안팎(1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

★ 원적외선의 풍부함은 온가족이 맛 볼 수 있는 기회!
 ※ 제품가격 : 보로 88만원(이부터), 침대 168만원(이부터) : 전국우료배송 설치

돌침대의 명재
氣 리빙스톤 (옥스톤)
 본사 · A/S : (02)424-9427 직영점: 0333)618-7773